

# NEWS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말씀 사경회와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장 차림)

## 1) 말씀 사경회

일시: 2019년 7월 19-21일 (금, 토, 주일) 시간: 저녁 7시 30분 (21일은 오후 12시 30분)  
강사: 이은성 목사 (서울 산들 교회 담임, 코스타 강사)

2) 추억의 사진전 (과거, 현재 사진) 준비된 성도는 제출 해주세요. (수요일까지, 메일/카톡 가능)

3) 선행 상 수여는 추후에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 하반기 성경읽기를 다음 주 월요일 (15일) 부터 시작합니다. 통독이 아닌 정독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 바랍니다. 범위: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방법: 매일 3장씩

3. 7월 저녁기도회가 오는 금요일 (12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4.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찬송 / 기도 / 안건 토의)

5. 공동체 학습 성경공부 수료자 명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호 경덕현 고미현 김명옥 김민경 김선화 김은우 김인희 김자경 김창조 김철재 문일숙 민선희 박덕철  
박정은 박제란 박현주 박후임 이광희 이규임 이성훈 이옥화 이정인 이혜경 장연식 장태옥 정관영 정혜숙  
최은수 한누리 한상순 허영순 황경임

6.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 7월 7일(주일)~7월 9일(화) 장소: Orere Point top 10 Holiday Park

주제 : ACTS29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하라!)

## [7월 사역일지 및 예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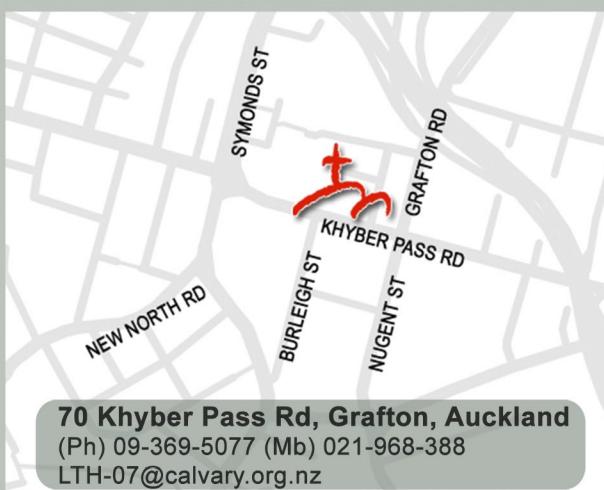
7일(주일) TEE 성경공부 수료식

21일 (주일) 창립주일

12일 (금) 금요 저녁기도회

31일 (수) 공동체 주관 수요 예배 (차드)

## INFO



##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 예배	주일 1:00 pm
청년 예배	주일 3:15 pm
수요 예배	수 7:30 pm
새벽 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http://www.koreaniptv.co.nz)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시편 105:1-3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35장

인도자

찬송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85장

다같이

대표기도

디모데후서 3:13-17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영광의 우리 주께

인도자

찬양대찬양

설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태한 목사

찬송

199장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수료식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445장

다같이

축도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현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기도

김영옥 권사

성경봉독

여호수아 21:43-45

설교

[하나님의 안식]

찬송

이성철 목사

주기도

부르신 곳에서

##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금주기도

김효설 자매

다음주일

김다은 자매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 7월 7~9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 [7월 기도 순서]

7월 14일 (주일) / 김철재 집사

## [7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김철재, 허영순

7월 17일 (수) / 장연식 집사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7월 21일 (주일) / 박덕철 장로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7월 24일 (수) / 김은희 집사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7/07  
21권 27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 MISSION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무더웠던 건기를 뒤로하고, 조금은 시원해진 우기에 접어드니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1년 내내 더운 나라이기는 하지만 정말, 지난 건기는 100년 만에 찾아온 살인적인 무더위였습니다. 전력이 모자란 탓에 계획 단전과 단수로 모든 국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빈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견디어 낸 후 맞은 우기… 반가운 빗 줄기에 엄~청 시원하고 비의 소중한 마음을 가지는 우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서른아홉 번째 사역 보고서는 영상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영상 주소는 유튜브 창에 'ICCHI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 사역' 과 'KOMA Cambodia 연합사역'을 치시면 됩니다.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은 사역은 캄보디아 교회사 역사를 연구하여 캄보디아 선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원 건축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고 KOMA Cambodia 연합 사역은 캄보디아 미래를 위한 장기 계획인 캄보디아 전역 유치원을 건립에 앞서 우선 유치원 교사들을 연합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문자보다는 영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유튜버"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고 영상으로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종 영상으로 보고서를 대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성도 여러분의 든든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힘내어 필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한 선교 자원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캄보디아를 위해 그리고 부족한 선교사가 하는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교사 이형식, 이은주 올림.

기도 제목

1. 더 낮은 모습으로 사역에 임하므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2. 간 제공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PRAYER

1. 성년에 맞는 교회답게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드러내도록.
2. 사경회를 통해 마음의 밭이 기경 되어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3.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 SHARING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새 본성을 받아 거듭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받은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두 본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늘 옛 본성과 새 본성 사이에서 영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으로 보이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종종 옛 본성인 마귀에게 속아 교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또한 분노하고 짜증 내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인 새 본성을 가지면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생각은 "믿음은 우리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면 되지 왜 그리 야단이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고 광적이고 자기들끼리만 모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행함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우리 삶으로 그들에게 새 본성을 드러냄으로 그들 모두를 우리 품으로 안아가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실 것이다. 주님의 바람이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새 본성으로 옛 본성을 다스리며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주님! 간절히 비옵니다.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문일숙 집사

## 금주의 암송말씀

디모데후서3: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